

# 캠퍼스 뉴스

## □ 건국대학교편

주곡농업의 한국을 축산왕국으로 전환시켜 농업근대화를 이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실천적 인재의 배양에 치중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은 축산, 낙농, 가공, 사료, 수의학과에 한 학년 140명으로서 윤상원(학장), 윤희섭(낙농), 이기만(육종), 최병규(가공), 신상주(사양), 오세정(가금), 윤익석(영양), 윤파병(수의), 한석현(육가공), 이재영(가공) 등의 교수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다. 또한 가장 방대한 규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축산대학은 졸소 270두, 탑 3000수, 돼지 200두, 면양 20두 이외에 꽃사슴 등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10만평의 부속목장에서 학생들의 보다 완전한 실습을 위해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일간 50t의 부속배합사료공장 및 가축병원, 생활관 등을 학생들을 보다 완전한 축산기술자로 길러내고 있다.

(본사 주재원 총 3 김호섭)

## □ 고려대학교편

1962년에 신설되어서 이제 120명의 졸업생



을 배출한 고려대농대 축산과는 160명의 학생들이 이제근(가금번식), 강면희(사양학), 김환경(우학), 김영교(육가공학) 교수님들의 지도아래 경기도 양주군 덕소면에 위치하고 있는 10만평의 부속목장에서 실습과 이론을 겸한 축산학도로서의 길을 닦고 있다.

(본사 주재원 총 3 전설배)

## □ 서울대학교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대 농대 축산학과는 100여명의 학생에 송계원(과장: 가공학), 이용빈(양돈, 육종), 육종룡(사양, 우학), 이승규(축산, 경영), 오봉국(가금), 한인규(영양학), 이영상(가금, 영양), 박영일(육종), 김동암(사료) 교수님들의 지도밑에서 공부 중이며 10경보의 부속목장에는 40두의 졸소, 20여두의 돼지, 1000수의 양계장이 각각 학생들의 실습에 완전한 숙달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구나 축산학도들은 부지런한 협동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기숙사가 부속목장에 세워져서 축산과의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겸한 완전한 축산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특히 여태까지 약간 저조했던 가공실습을 위하여 100평의 유, 육가공장이 새로 설립되어서 이제 학생들의 실습은 각 분야에서 거의 완벽을 기할 것 같다.

(본사 주재원 총 3 박승균)

## 월간양계 구독 찬조회원 모집

가금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양계” 및 기타 간행물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찬조회비를 송금해 주시면 본 협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일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찬조회비 : 1년분 720원

반년분 480원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전화 26-0321)